

일본 도시들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만나다

도시를 거닐면 일본사가 보인다

박진한 지음



“머리로는 국가대 국가, 민족대 민족의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보면서도 몸과 마음은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집단적인 ‘반일’ 정서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주관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 일본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방법은 없을가?” 신간 ‘도시를 거닐면 일본사가 보인다’는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일컫는 일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일본 도시사(史)를 연구해온 박진한 인천대 일본지역문화학과 교수 겸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장은 ‘일본 인식과 소비에 나타나는 이중성을 넘어, 상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시선을 가지기 위해’, 그리고 ‘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일본을 살펴보기 위해’ 역사적인 산물인 일본의 도시공간에 주목한다. 특히 “이 책에서는 일본의 도시가 한국의 도시와 얼마나 다른 역사를 가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했다”라며 “상대와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랍로 상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저자는 ‘일본인의 마음의 고향’이라 하는 아스카(飛鳥)를 시작으로 모두 13개의 도시를 통해 일본의 고대, 중·근세, 현대사 속으로 독자들을 이끈다. 1부(고대 편)에서 아스카와 후지와라령, 헤이조경(훗날 나라), 헤이안경(훗날 교토)을, 2부(중·근세편)에서 가마쿠라, 아즈치, 오사카, 에도(현 도쿄) 등 무가(武家)

도시를, 3부(근대 편)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하카타, 가고시마, 요코하마, 기타큐슈, 히로시마를 살핀다.

저자는 1부에서 현재 천황가의 선조에 해당하는 야마토(大和) 왕조의 도읍이었던 아스카부터 여러 차례의 천궁(遷宮)을 거쳐 794년 교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생소한 일본 고대사를 풀어낸다. 이를 통해 대왕대신 천황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도입하고, 율령(형법+국가 통치 조직 등의 행정법)을 제정하며, 도성을 건립하는 등 천황중심의 중앙집권화와 도성제에 따른 도읍 정비 과정을 보여준다.

2부에 소개되는 가마쿠라, 아즈치, 오사카, 에도 등은 권력을 잡은 가마쿠라 막부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무사정권의 본거지였다.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 거리 바닷가에 위치한 가마쿠라는 가마쿠라 막부의 중심지였다. 또한 나쓰메 소세키 등 ‘가마쿠라 문사’들이 작품 활동을 한 공간이면서 독자들에게 친숙한 만화 ‘슬램 덩크’의 무대이기도 하다. 저자는 “최초의 무사정권이 들어선 ‘무가의 고향’에서 태양족의 성지이자 서평과 보드로 대표되는 대항문화의 성지까지 가마쿠라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82만명으로 전체 발일 외국인 수(3687만명)의 23.9%를 차지한다. 인력거꾼이 관광객을 태우고 도쿄 아사쿠사 센소지 사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러 가지 얼굴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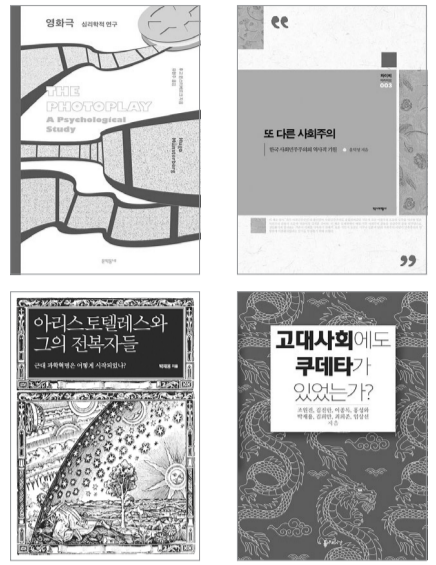
저자는 ‘천하의 부엌’ 오사카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서로 다른 시간의 층위가 중첩되어’ 있는 에도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인물과 사건, 공간을 적절하게 융합해 흥미롭게 들려준다. 3부에 등장하는 하카, 가고시마, 요코하마, 히로시마 등은 메이지 유신과 산업혁명을 이끈 근대도시들이다.

지난 15일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2024년에 한국인 882만 명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3687만명이 방문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신간을 통해 일본 여러 도시가 겪은 파란만장하고 역동적인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주마산(走馬看山)하듯 단순한 관광객과 다른 여행을 할 수 있을 듯하다.

〈푸른역사·2만5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운 책

▲영화극-영화가 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개진한 영화이론에 주목한다. 영화의 내적, 외적 발전 단계부터 영화극이 내포한 심리학적 요소들을 고찰한다. 영화의 ‘깊이’와 ‘운동’을 비롯해 주의집중, 기억과 상상, 영화극의 미학과 수단, 기능을 통해 영화와 극 형식이 결합한 ‘영화극’만이 지니고 있는 미학을 탐구한다. 기존 사진 예술의 특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진과 영상 언어만의 ‘이미지 인지 방식’ 등을 논한다. 〈문학동네·1만9000원〉



▲또 다른 사회주의=총 4권으로 구성된 ‘한국 사회주의사상-문화사’ 총서 중 첫 번째 책으로, 남북분단의 내적 요인을 고찰한다. 한국에 사회주의가 뿌리내린 기원과 형성을 들여다보면서 문제점들을 사상적으로 돌아본다. 1910년도 사회주의가 본격 수용됐던 시기부터 1948년까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제국 일본에서 사회민주주의가 형성됐던 시기를 비롯해 일제하 한국 사회주의 연구의 시각,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의 전취론 등을 단계적으로 살펴본다. 〈역사비평사·2만8000원〉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전복자들=과학과 철학, 의학과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후대 인문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가 정립한 세계관은 자연을 목적론과 위계적 질서 안에 편입시켰다는 비판 또한 직면한다. 그의 사상이

이슬람의 과학관을 거쳐 근대 과학자들에게 의해 전복되어 온 과정을 면밀히 추적한다. 탈레스, 아나시만드로스 등 그리스 자연철학 이론 등을 검토해 나간다. 〈사물의책·2만3000원〉

▲고대사회에도 쿠데타가 있었는가?=위만 조선부터 발해까지 다채로운 정변의 현장들을 살펴보고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왕위 계승을 둘러싼 사례들을 분석한다. 천도를 하거나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 또는 사회질서와 방향성을 재편하려는 움직임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했음을 역설한다. 신라 하대 쿠데타와 대외교섭 및 발해 역사의 변혁까지 시기별로 우리 역사를 개괄한다. 〈투새의시간·1만7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정신적 승리=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고교생 정승리는 포악한 아버지와, 학생들을 괴롭히는 불독 선생 틈에 끼어 있다. 승리를 매일 구박하는 친구 ‘개새’와 그의 말에 동조하는 반 친구들도 밍기만 하다. 이런 현실에서 불현듯 사라져버리고 싶은 요즘, 승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후유증으로 신비한 증상이 발생되기 시작한다. 〈스피리투스·1만5800원〉

▲거부기의 저주=내가 거부기가 되었다고? 늘 목을 빼고 다니는 우기는 늘 구부정한 자세로 다녀 ‘거부기’라는 별명을 얻는다. 그러던 어느 날 엉덩이에 거부기 꼬리가 생기고, 발도 노랑고 딱딱하게 변

하고 만다. 150살까지 살지만 느릿느릿한 거북이가 되어버린 것일까? 재미있는 거북이 저주를 통해 바른 자세를 강조한다. 〈보랏빛소어린이·1만6800원〉

▲소중해 소중한 너의 좋은 점=겉이 많은 사람은 ‘두루두루 보여 양경’을 착용하고 있어서, ‘깊이깊이 생각 모자’를 갖고 있어서라는 발상이 흥미롭다. 주위를 자세히 관찰하고 깊게 생각하는 장점은 한편으로 겉을 막게 하고 소심하게 만들기도 한다. 긍정심리학을 통해 자신의 좋은 점을 발견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니어RHK·1만4000원〉

불안의 시대에 새로 쓰는 눈부신 ‘실패 이력서’

우리의 실패가 쌓여 우주가 된다

김지은 지음



사람들은 처음엔, 실패를 묻는 인터뷰어에게 당황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인생 곡절마다 결핍과 실패가 함께 했고 그로 인한 시도와 분투가 오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무나파크’ 작가 홍인혜)이었다는 점을 새삼스레 느꼈다. 배우 김혜수처럼 “이런 인터뷰라면 나도 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나선 이도 있었다.

일간지 인터뷰 전문 기자로 인터뷰집 ‘언니들이 있다’, ‘엄마들이 있다’ 등을 펴낸 김지은의 ‘우리의 실패가 쌓여 우주가 된다’는 ‘실패의 연대기’와 ‘실패 이력서’를 통해, 그 실패가 결국 ‘새로운 시작’을 잉태시켜 ‘현재의 나’를 만들어간 힘이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사람들이 입에 담기 꺼려하는 ‘실패’를 다시

정의해보고 싶었다. “실패가 품고 있는 부정적인 어감을 바꾸고 싶었고, 실패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었고, 그리하여 실패를 실패가 아닌 그 무언가로 불리려고 싶었던” 그는 12명의 인터뷰이를 초대해 이야기를 듣는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뒤늦은 나이에 발레를 시작해 동양인 최초로 마린스키 극장에 선 발레리노 이원국의 ‘실패’는 끝없이 이어졌고 난지도 쓰레기 더미에서 폐지를 주으며 그는 자신의 삶을 찾기 시작한다. ‘설 무대’가 없어 방황하던 개그우먼에서 이제는 구독자수 270만명의 유튜브 채널 ‘앤조이 커플’의 크리에이터로 당당히 선 임라라 역시 수도 없는 좌절의 순간을 겪었다.

어느날 영화 ‘밀양’을 보고 “그래, 연기는 저런 분들이 하는 거지, 너 그동안 완전 애썼다. 정말 충분히 수고했다”라며 스스로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김혜수는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닌 성장, 중요한 건 실패가 아닌 시도”라고 말한다.

눈길을 끄는 건 지독한 실패를 경험한 후,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으로 성장해간 이들의 이야기다. 고등학교 때 대마초를 접한 후 15년

간 마약 중독자로 살다 중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한부식 원장,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자살마저도 실패한”은둔 청소년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오다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처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282복사의 강미선 대표, 성매매 당사자였던 이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활동가로 일하는 진(가명) 등이다.

또 발라드를 부르던 대중가수에서 벗어나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라는 노래를 통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외치며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가수 하림, ‘실패’라는 단어를 몰랐을 것 같은 UCLA의 로봇공학자 데니스 흥, “어쩌면 매일이 수능 같은” 아이돌들의 심리상담을 해주는 심리상담 전문가 조한로, 카이스트 실패연구소 안혜정 연구조교수 등의 인터뷰도 눈길을 끈다.

“자신만의 언어로 실패를 정의해본다면?” 저자가 모든 인터뷰이에게 마지막에 던진 질문이다. 각각의 실패를 겪어온 우리 모두가 스스로 답해볼 만한 질문이다.

〈휴머니스트·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